

자계예술촌

제12회

산공공연
예술잔치

다시 촌스러움의 날

2015. 8. 13(목)~15(토) 저녁 7시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www.jagyeart.net

관람료 : 후불 자유관람료 문의 : 043-743-0004 후원 : 영동군

제12회 산골공연예술잔치

자계예술촌

다시
촌스러움으로

[다시 촌스러움으로]는 산골공연예술잔치의 모토입니다. 다소 추상적이라서 무슨 뜻인지 명확한 상이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본 사람마다 자신들의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재미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이 문구를 모토로 정한 이유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밝히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마음인거지요. 벼농사 대신 돈이 되는 다른 농작물로 바뀐 대체되고 있는 요즘에도 농부가 나락농사를 어찌 그만 둘 수 있느냐며 내가 먹는 밥을 다른 사람이 농사 진 쌀로 해 먹을 수는 없다,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내 자식은 내가 보내준 쌀로 밥해 먹고 싶다는 어찌면 고집스런 농부의 마음들이 존중되고 가치로움으로 인정되는 그런 촌스러움의 회복! 그런 비슷한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작품들로 산골공연예술잔치 밥상을 차리고 싶습니다.

제12회 산골공연예술잔치 전체 프로그램

<p>8월 13일(목) 19:20 개막식</p>	<p>8월 14일(금) 19:00 야외무대 팜시어터 [할 말 있는 늑대]</p>	<p>8월 15일(토)</p>
<p>19:30 야외무대 음악당 달다 [랄랄라쇼]</p>	<p>19:30 야외무대 project골스 [The Chair]</p>	<p>19:30 야외무대 팜시어터 [달콤한 나의 집]</p>
<p>20:30 야외무대 마당극패 우금치 [침아침아 내 딸 청애]</p>	<p>20:30 야외무대 예술공장 두레 [다 그렇지 는 않았다]</p>	<p>20:30 야외무대 자계예술촌 [방을 위한 투쟁]</p>

후불 자유관람료?

후불 자유관람료는 관람료 무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산골공연예술잔치를 함께 이어갔으면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울력이란 말이 있지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일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보탬 수 있는 것들이 한데 모여져 잔치가 되는 그런 잔치를 차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꼭 얼마만큼, 무엇으로 획일화 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느낌만큼, 감동만큼"만 마음이 가는대로 표현되길 원합니다.